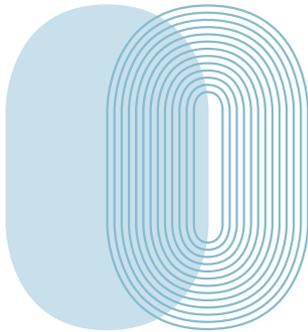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동천(東泉)

동천(東泉) 동쪽의 샘이라는 뜻으로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한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의 아호입니다. 동쪽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의 젓줄이 되는 한강처럼 우리 사회 공익과 인권을 위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Address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빌딩 B동 10층
Tel 02-3404-7590
Fax 02-3404-7305
Homepage bkl.or.kr
E-mail bkl@bkl.or.kr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처 재단법인 동천
디자인 청맥

Contents



- 04 BKL 공익활동지표
- 06 인사말
- 08 소개 (재단법인 동천, BKL 공익활동위원회)
- 10 2020 하이라이트
 -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수자를 지원하고 옹호하다
 -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활동하다
 - 공익법률지원 기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다
 - 빈곤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다
 - 편견과 혐오에 맞서 진실을 밝히다
- 20 동천NPO법센터
- 24 2020 동천 활동
 - 공익법률지원
 - 사회공헌
 - 태평양과 함께하는 활동
- 36 언론보도
- 38 나눔이야기
- 40 참여안내
- 41 동천 살림살이
- 43 대한변협 공익활동지표
- 44 동천 주요 연혁
- 46 EXECUTIVE SUMMARY

L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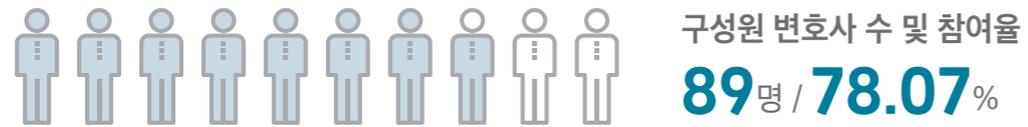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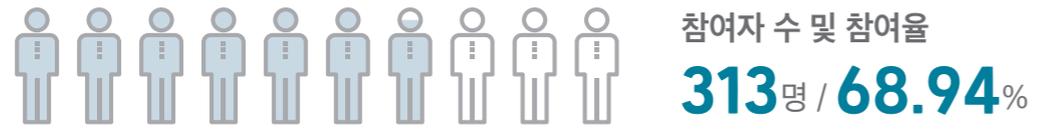
(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 LSR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단어로 로펌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소속 변호사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공익법률지원(Pro Bono)활동과 기부, 봉사 등의 사회공헌(Contribution)활동을 통해 LSR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bkl 공익활동지표

2020년에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많은 국내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었습니다. 태평양은 국내 로펌의 사회적책임(LSR: Lawfirm Social Responsibility)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보노 활동 참여자



프로보노 활동 참여 시간



(서울지방법원사회 공익활동 기준시간: 2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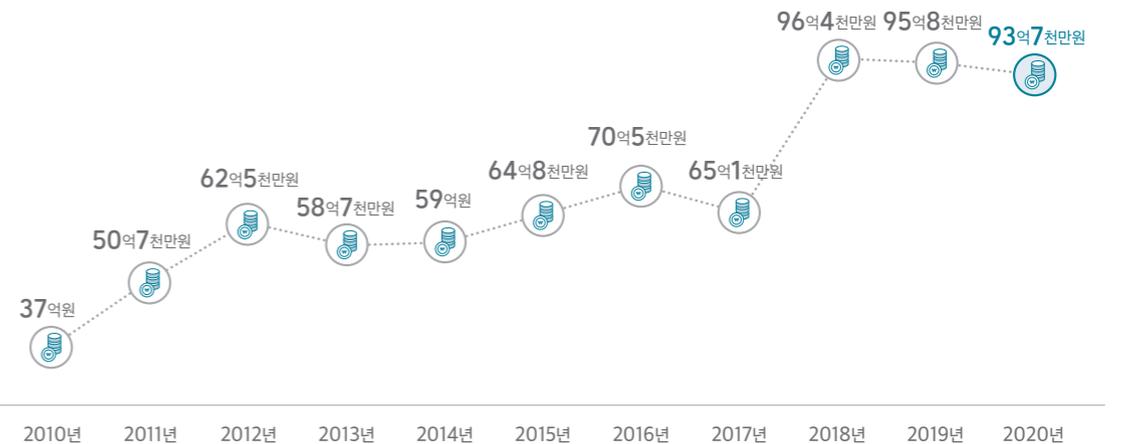
프로보노 활동 총시간

단위: 시간



프로보노 활동 현금 환산액

단위: 원



※ 이 공익활동 지표는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의 활동을 서울지방법원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익활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는 우리 일상과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누군가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법률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처지의 근로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마스크 등 긴급한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0년 한 해 동안 난민지위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이주민의 건강보험 제도 차별에 대한 헌법소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이혼소송, 장애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명예훼손 형사소송 등 다수의 공익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홈리스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이끌어 냈고, 잘못된 근로능력판정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하였다가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을 대리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차한성

비영리단체(NPO)의 법률지원 기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천NPO법센터’가 매년 진행하는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통해 이제 135명의 변호사가 NPO와 매칭되어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체계, 의사록 인증 제도 등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NPO운영전문가과정을 운영하여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익법총서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출간하였고, 뒤이어 기업공익재단법제 연구를 공익법총서 제7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5권 사회복지법연구는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를 힘들게 했던 사회적 위기에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함께 해준 태평양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익활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동천은 2021년에도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공익변호사, 전문가, 비영리단체 활동가, 프로보노 변호사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BKL 공익활동위원회

Vision

동천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문화 발전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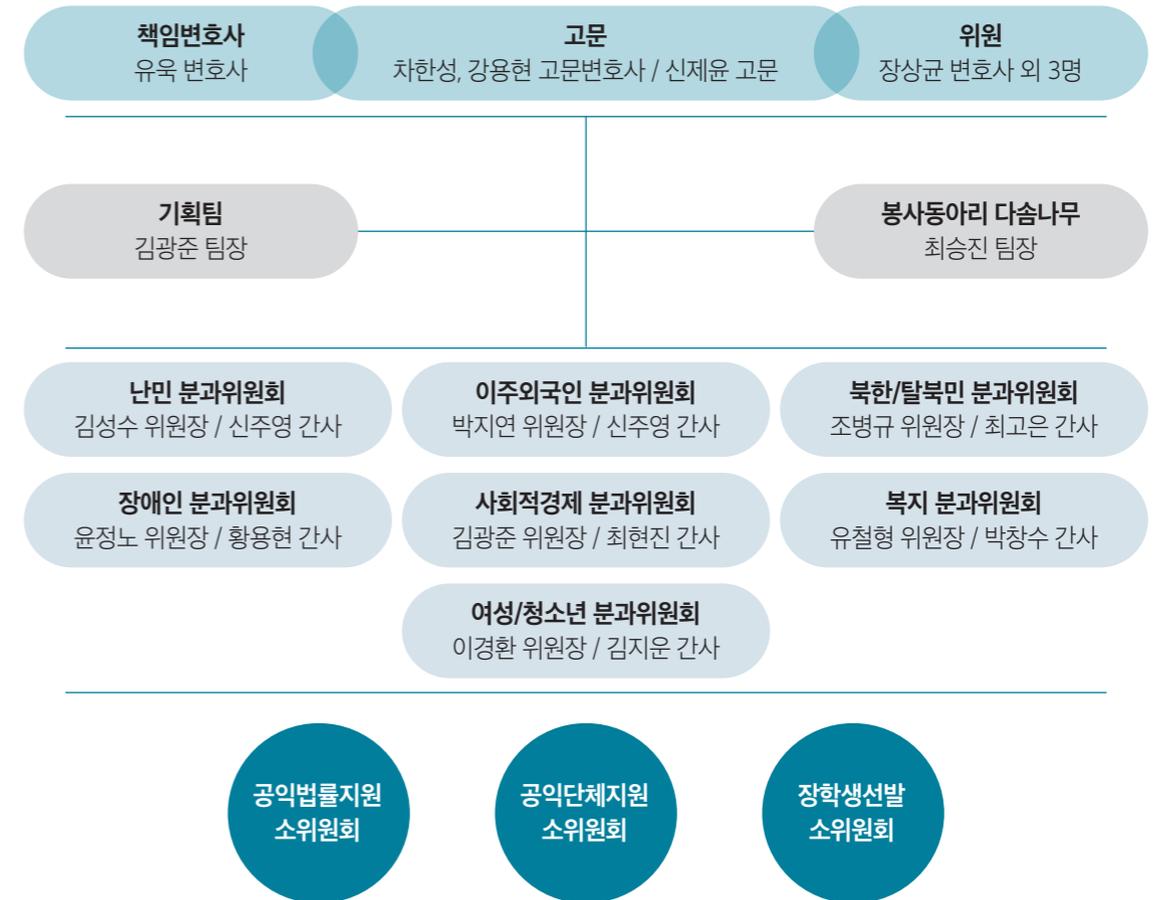
- 소수자,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제도개선, 입법지원활동
-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로펌의 사회적책임 (LSR: Lawfirm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한 활동
- 로펌 구성원의 자원활동, 자선행사 참여 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법률지원 수요발굴 및 공익단체 지원
- 공익변호사 등 공익법률지원 전문가 양성

구성원

이사회	차한성 이사장	이형석 상임이사
	강용현 이사	이경환 이사
	노영보 이사	신제윤 고문
	유 옥 이사	
변호사	이희숙 상임변호사	권영실 변호사
	이탁건 변호사	황인형 변호사 (동천NPO법센터)
	송시현 변호사 (동천NPO법센터)	정제형 변호사
Staff	홍성철 사무국장	김윤숙 간사
	구대회 팀장	김유정 간사

태평양은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박시제중(博施濟衆)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설립	2001년
인원	199명 (2020년 12월 기준)
구성	7개 분과위원회 및 3개 소위원회로 구성
기타	최대 140시간의 공익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수자를 지원하고 옹호하다



코로나19의 충격은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미치고, 그곳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수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스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 태평양과 동천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KF-94 마스크를 난민, 이주외국인 및 장애인 지원 단체에 전달하였고, 급박한 시기에 자가격리된 대구 내 장애인 및 활동지원가들을 위한 손소독제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태평양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대한변호사 협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작성에 조력하였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각종 긴급지원금이 이주 외국인에게까지 닿지 못하는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멈춤 없는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한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무료상담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화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보재 만들기 등 비대면 방식의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활동하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0년 국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월에 발간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전반을 조망하고,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 변호사 및 활동가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익법총서는 관련 단체와 기관들에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39명의 제11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100여 명의 태평양 구성원과 동천의 후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장학사업은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코로나19로 교육과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난민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10명의 난민 가정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주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활발히 노력하였습니다. 5월 5일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한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냈고,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법률지원 기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다



태평양과 동천은 함께 걷는 이가 많아질수록 가는 길이 넓어진다는 믿음으로, 공익법률지원 기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천이 개최하는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은 올해도 각 100여 명의 변호사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열려,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의 기초와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 하계 로스쿨생 실무수습을 진행하였고,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열어 예비 법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예비 법조인들의 '통일법정책 연구 제안'을 시상하였습니다.

실무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매뉴얼 발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주글로벌컴팩트에 대한 해설과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주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였고, 현장 실무자들을 위한 <외국인 상담 매뉴얼>을 공동집필하였습니다. 복잡한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실무를 당사자와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 이해 길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12개 대형로펌이 가입한 로펌공익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외연과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련 인권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로펌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행려환자들의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포함한 8개 로펌은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법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다

안정적인 거처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홈리스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생계유지에 급급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빈곤한 자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명의도용범죄의 피해로 인해 사업장에 등록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홈리스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재판과정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명의도용범죄의 피해자이자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홈리스라는 점, 납세고지서 송달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위법 등을 적극 다투어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조세채무의 부담을 해소하고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었습니다.

동천은 여러 공익법단체들과 함께 잘못된 근로능력판정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일을 하다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진행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근로능력평가가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정'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를 사실상 강제하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민변·경향신문으로부터 2020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편견과 혐오에 맞서 진실을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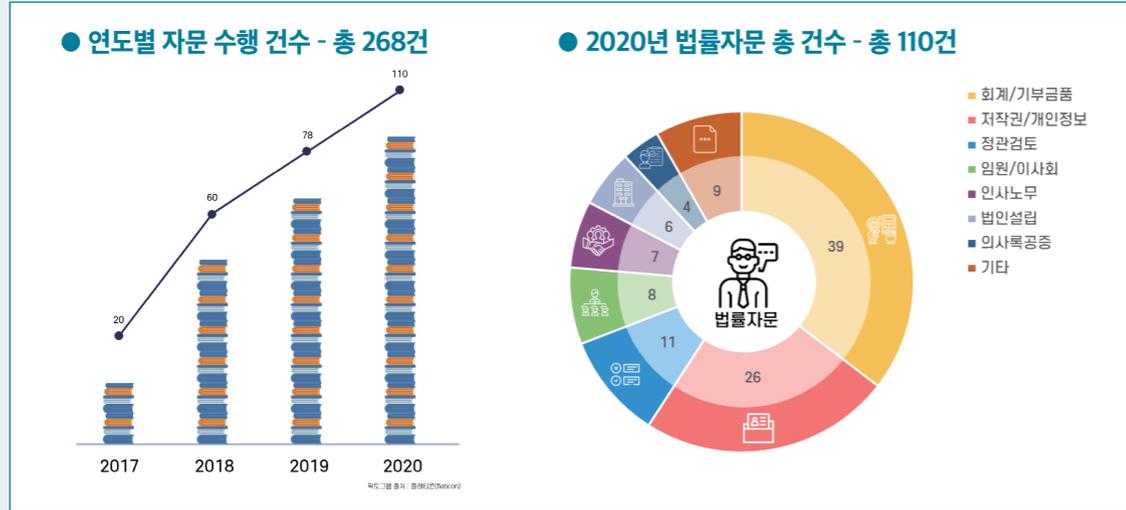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은 때로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때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들에 의하여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비하적 발언 속에서 심화됩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허위사실과 비하적·혐오적 발언을 통해 행해지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동천은 난민인권센터와 허위로 작성된 다수의 허위난민심사면접 조서로 피해를 본 난민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난민면접 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및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허위면접조서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권고 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적 발언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진정한 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합목적적 해석상 '구체적으로 피해가 특정된 피해자 개인'이 아니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여러 건의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이 특정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해오던 태도를 바꾸어, 비하적 발언을 행한 정치인에게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동천NPO법센터



과도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비영리단체 지원

난민 지원 단체인 피난처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1/5을 초과하였고, 출연자가 대표로 활동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0년간 대표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정된 가산세를 모두 부과하였다면 2019년 기준 1년 기부금 총액의 2/3를 납세하여야 해서 단체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소규모 단체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이며, 서류상 출연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연된 금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전 임의단체가 보유한 후원금 등이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2회에 걸쳐 세무서에 제출하고 가산세 부과와 부당성을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등 당국의 조밀한 규제로 인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법인을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영세한 단체를 설립하고 헌신적으로 운영하는 활동가들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후에도 관련 사례들을 수집하고 자문의견을 제공하며,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위기에 처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지정기부금단체는 정기적으로 지정기부금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불가능해지는 등 단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익활동가들의 의료, 심, 교육, 생활안정 등을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해 상반기에 재지정 추천을 신청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담당자 변경으로 검토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2020년 지정기부금 추천 마감 이틀 전에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 사업(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하는데, 동행의 경우 제1호~제3호가 아닌 제5호 사업(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주 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호~제3호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세법상 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함께 동행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행히 추천 마지막 날에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신청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여부를 마감 2일 전에 추천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통보를 받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해왔던 동행으로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조직 자체의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동천이 동행에 상세한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동천의 법률자문서와 내용을 근거로 행안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재지정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천이 아니었다면 저희 동행은 정말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동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행이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마련과정에서도 동천의 법률자문이 크나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훈번 운영위원장 인터뷰

공익법인 세제 관련 법제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공익법인이나 주무관청 담당자의 부족한 이해로 인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과도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단체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교육, 필요한 제도 개선 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하셨습니다 ㉹



NPO 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

동천NPO법센터에서는 2020년 12월 개소 5주년을 맞아 NPO법률지원단 우수번호사 및 단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동천이 시행하는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를 NPO와 1:1로 매칭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공익활동 및 NPO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NPO법률지원단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6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6기 NPO법률지원단의 경우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광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35명의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NPO와 매칭되었습니다.

동천NPO법센터는 매칭된 변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필벽재단과 제1기 NPO법률지원단 강태리 변호사, 사단법인 제이에이코리아와 제2기 NPO법률지원단 유보미 변호사, 링크(Liberty In North Korea)와 제2기 NPO법률지원단 전정환 변호사, 녹색교육센터와 제3기 NPO법률지원단 한주현 변호사,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와 제5기 NPO법률지원단 이은영 변호사입니다. 단체들은 매칭된 NPO법률지원단 변호사 덕분에 법률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소한 자문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 NPO매칭신청

프로보노 변호사와 1대1 매칭을 희망하는 NPO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기 NPO법률지원단 위촉 이후 신청단체와 매칭이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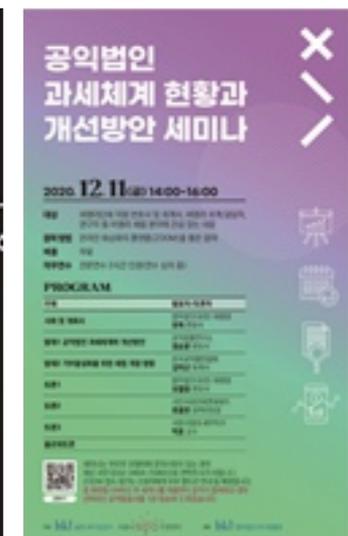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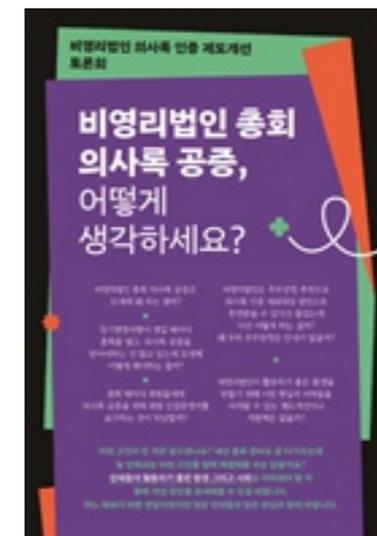
NPO법률지원 신청 주소 <http://goo.gl/CB9RJk>

NPO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동천NPO법센터는 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0 NPO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NPO들이 운영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운영, 세무, 기부금품 모집, 노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강의하였습니다. 특히 동천이 제작, 운영하고 있는 NPO운영 셀프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2020년 NPO 운영 현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세미나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 이후 강화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공익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기부 확대의 관점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본 세미나에 이어 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N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제도 개선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NPO들이 사원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인증으로 인해 경제적,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개최한 토론회였습니다. 공중실무와 현장에서의 어려움, 의사록 인증 제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동천NPO법센터는 향후에도 의사록 인증 제외 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법률지원



상세 내용 확인



2020 동천 활동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태평양과 함께하는 활동

bkl

난민

난민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2020년 한 해 동안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새 삶을 찾아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을 상담하고, 난민신청, 이의신청 및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조력하였으며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난민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랍권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작성된 다수의 허위난민면접조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난민인정자들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의 난민법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었으며,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제1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주 외국인

이주외국인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취약한 지위로 인해 가혹한 한 해를 보낸 이주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매주 월요일 정기 상담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업장변경으로 인한 체류자격 박탈 등 여러 사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민형사 절차를 지원하고,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이혼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권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코피노 아동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보건복지부의 한시지원금 외국국적 아동 미지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주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외적으로도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협의체에 참여하였고, 이주 글로벌컴팩트에 대한 가이드북을 공동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사회적경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약관 검토, 판매 관련 법률 사항 검토, 계약 관련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 봉사 관련 각종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연구, 협동조합 법률자문 및 교육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관련 자문, 기금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 공동체주택 법제도 개선안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의 개정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내부 세미나, 소셜벤처 대상 법률교육, 주민자산화 법률강의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2020년 여성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익법총서 제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여 국내외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총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청소년 성착취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 관련 제도, 청소년 주거 정책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학 성추행사실 공개 관련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항소심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에 관한 UN 특별보고관보고서 작성 조력, 디지털 성범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에 참여하여 성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탈가정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지원주택 관련 토론회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온라인 노동인권박람회에 참여하여 멘토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 탈북민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도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보호와 남북 관계 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강제로 중국으로 보낸 남편을 상대방으로 한 탈북 여성 A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어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무국적 상태가 된 북한이탈 주민 자녀 B를 대리하여 중국에서 북반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친모를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확인인 소를 제기함으로써 국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 하였음은 물론, '북한투자실무가이드'를 삼정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발간하였고, 비무장지대 민사행정용역을 수행하는 등 남북교류,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교육(NKReLATE), 탈북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하여 현재 북한/탈북민 법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현황을 더욱 많은 변호사들과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2020년 장애인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2층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발달장애인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친족의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를 조장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정신장애인의 정신병원 사망사건 고소, CRPS 환자 장애등급 신청, 정신 장애인 공무원 임용거부 취소소송 등 다양한 소송 및 사법절차에 조력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처벌 실태 연구, 장애인의 공영장 내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 가이드 마련을 위한 국내외 규범 연구 등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검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 서울매드프라이드 현장법률지원, 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온라인 법률상담소 법률상담 등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복지



복지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2020년에도 홀리스 등 빈곤취약계층의 인권 향상과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홀리스인 명의도용 피해자를 대리 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이끌어내고,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사망에 이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유족을 대리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여 빈곤취약계층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건 복지부와 협력하여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행려환자들의 성분창설 및 주민등록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복잡다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빈곤층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수첩 제작을 지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 청년월세지원센터 운영위원, 홀리스 주거팀 등에 참여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지원매뉴얼 작성, 동물학대 사건 수행에 대한 법률지원 등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과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는 법치주의 확산에 따라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반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공익법총서 목록



※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 연구>는 2021년 6월에 발간될 예정

제1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열한 번째 수상자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활동을 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2005년부터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탈시설 상담과 자립생활 지원, 인권실태조사 및 출판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탈시설 정책연구와 입법활동 등 15년 동안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2010년 제정되어 매년 12월,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상장 수여)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

재정적으로 열악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상/하반기 각 4개 단체(총 8개 단체)를 선발해 약 4,000만 원(단체 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구분	사업명	단체명	영역
상반기	아랍어 허위 난민면접 피해자 법률지원	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간 통합놀이터 만들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
	비닐하우스촌의 안정적 주거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	사회적도시건축가그룹ASP	복지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빈곤사회연대	복지/빈곤
	재가(在家) 양육 미혼모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여성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연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손잡기	한베평화재단	NPO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 활동 참여

예비 법조인들이 관심이 있는 공익·인권 분야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보는 제안대회로 공익변호사나 프로보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제9회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발표에 6팀이 발표를 했고 그 중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최우수 제안으로, 아르바이트 전문 법률 상담 챗봇(알바고_AlbaGo), 난민 종합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이 각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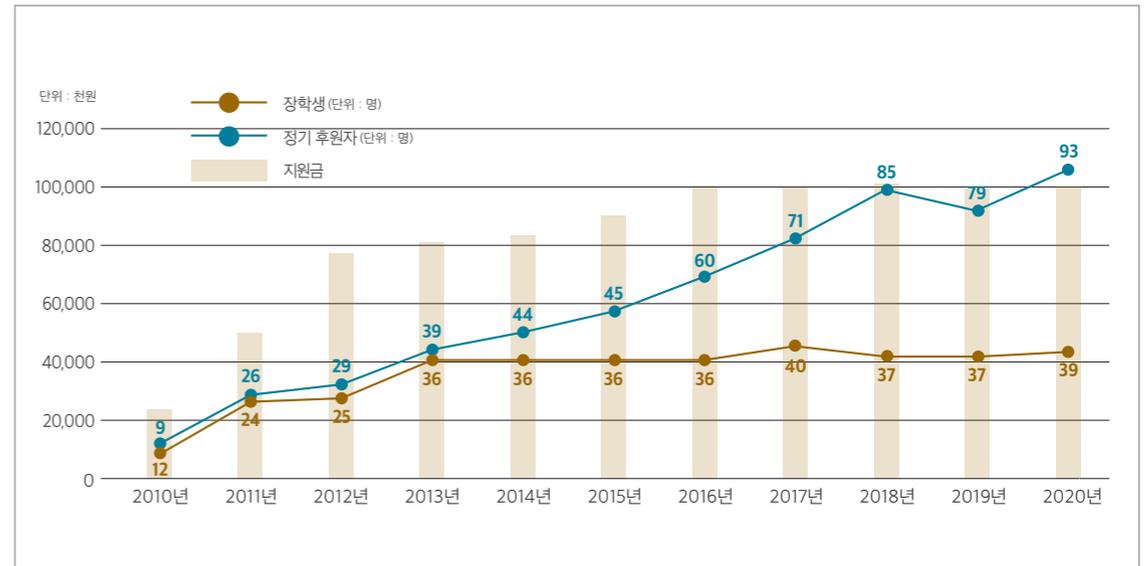


●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통일법정책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해 대학부에서는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대학원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비보호 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연구'가 가장 우수한 연구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학사업

2010년부터 매년 난민,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등 소수자 및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과 공익 변호사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동천은 태평양 임직원 93명과 3개 팀의 기부로 제11회 장학생을 39명을 선발해 약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장학사업과는 별도로 UNHCR 한국대표부의 후원을 받아 난민 장학생 10명을 추가 선발했고, 연말에는 난민 장학생 22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 장학금 지원현황



태평양과 함께하는 활동

더불어 함께 온라인 나눔음악회



태평양과 동천이 2012년부터 매년 태평양 창립기념일(12월 10일) 주간에 개최하는 '더불어 함께 나눔음악회'는 법인 구성원들의 건전한 송년회 문화를 확립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공익단체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나눔음악회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나눔음악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회에 걸친 BKL합창단, 기타동호회 그리고 외부 초청 오케스트라의 공연영상을 3주간 온라인으로 감상하며 법인 구성원의 자발적인 나눔참여가 있었고, 태평양에서는 법인 소장 미술품 일부를 사내 나눔 경매 방식으로 판매해 모은 수익금 전액을 동천에 기부하였습니다. 연말 나눔 행사 기간 동안 법인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후원금 약 3천만 원은 전액 8개 공익단체와 소외계층 장학생 10명 그리고 영아원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KF마스크 및 세정제 나눔행사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했던 시기, 지난 3월 말에 난민신청자와 이주외국인들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아껴 1~2장씩 기증하거나 마스크 구입비용을 기부해 나눔에 동참하였고, KF마스크 1,625장을 난민 지원단체 2곳과 이주외국인 및 장애인 지원단체 각 1곳, 총 4개 공익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교보재 만들기



코로나19로 학습기회가 줄어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태평양 전문가와 직원 100명이 점자교보재를 제작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자 교보재는 선천적 혹은 사고, 질환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시각장애를 입은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히는 데 활용됩니다. 제작된 점자교보재 100개는 지역사회복지관과 맹학교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의저금통' 나눔행사



2020년 3월, 법인이 강남에서 종로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2020 사랑의 저금통'을 제작하고 나눔행사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법인 구성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사랑의저금통'은 환경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법인 구성원의 자발적 나눔으로 한두 푼 정성스럽게 모인 '사랑의저금통'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익단체나 소외계층 장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점심시간 정기 배식봉사

태평양과 동천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역삼역에 위치한 충현복지관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300여 분이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식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종각으로 사무실 이전과 함께 종로3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배식봉사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안타깝게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법인 구성원들의 활기찬 주중 봉사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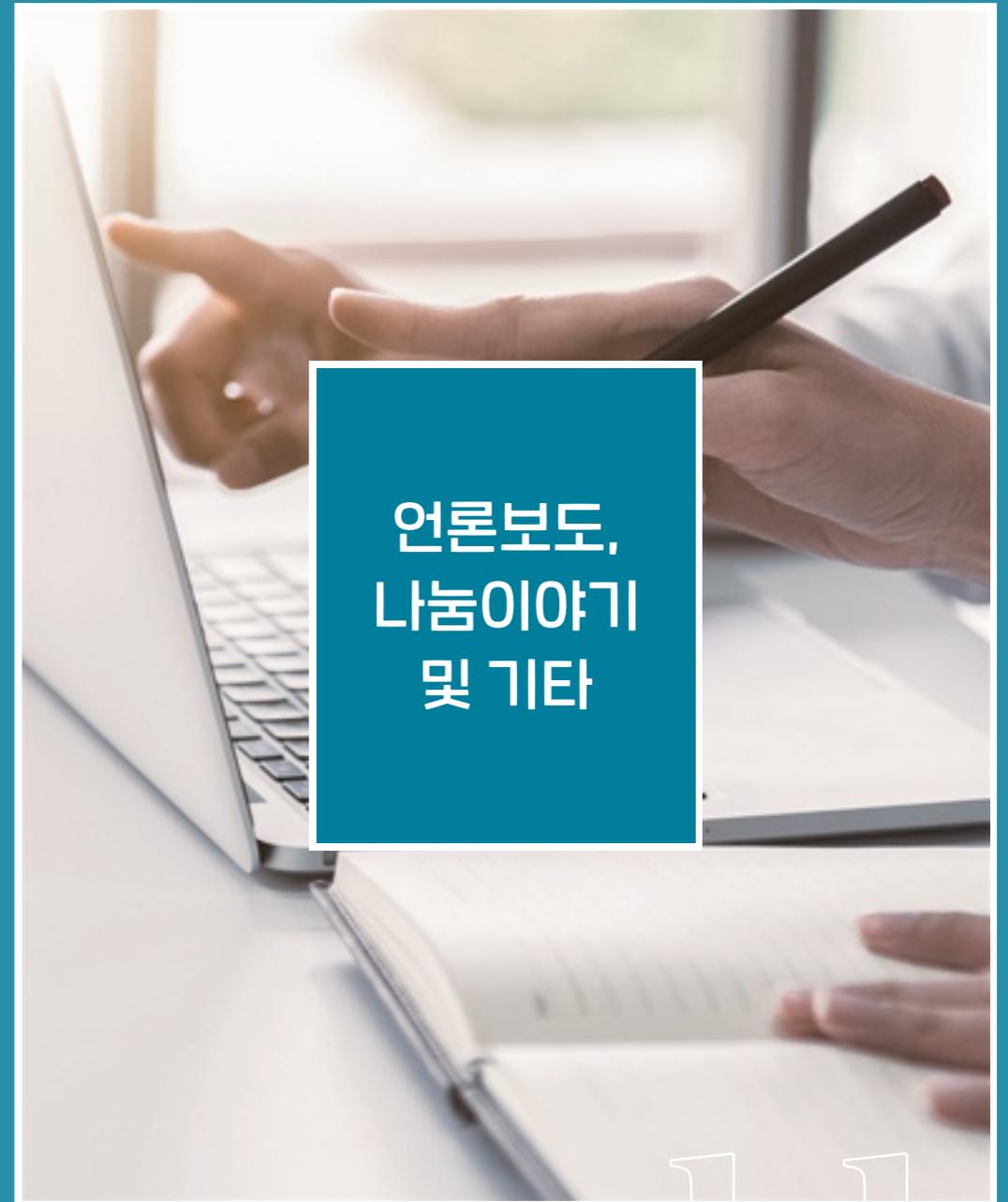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성원들이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익인권영화 상영회>와 <공익포럼>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2주에 걸쳐 개최된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를 통해 차별에 맞선 미국 여성 대법관 킴버버그의 이야기 '세상을 바꾼 변호인'과 환경문제를 다룬 '플라스틱의 모든 것', 2편의 영화를

각자의 공간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공익·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단체인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의영아 소장을 초청해, '20여 년 동안 이주민의 권익보호에 힘써온 아시아의 창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태평양 구성원 약 50명이 함께 온라인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동호회 다솜나무

"다솜나무"는 2007년 태안반도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직원이 뜻을 모아 2008년 2월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솜나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하여 청소 봉사를 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에 기저귀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는 매년 '밥상공동체'의 연탄은행과 협업하여 연탄 기부 및 배달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달 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연탄 기부만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나눔이야기
및 기타

bkl

언론보도

공익법률지원

- 잠들어 있는 국가에 돌을 던진 '배드 파더스' (경향신문 1.19)
- [승소열전] 공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법률신문 1.23)
-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과 주거권 보장”...청소년 자립 주제 토론회 개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1.31)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겨레 2.22)
- 따뜻한 공동체 함께 만들자...사회적 책임 다하는 로펌들 (한국경제 4.23)
- '한국서 나고 자랐는데...'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들 (SBS뉴스 5.6)
-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난민인권 매칭' 라운드테이블 (법률신문 5.7)
- 태평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화상 무료 법률상담 시작 (리얼타임즈 6.9)
- '난민법' 등 시행에도 '공항난민' 인권침해 심각 (법률신문 6.17)
- 장애인에게만 평등하지 않은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하라” (웹툰뉴스 6.26)
- '코로나19와 인권'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10~11일 개최 (법률신문 7.2)
- 서울변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화제 (법률신문 7.7)
- “상호성에 기초한 협동조합 정체성이 반영된 기본법 필요” (이로넷 7.16)
- 거소 없는 의료급여 행려환자에 주민등록 지원...“적극적 복지 지원 가능” (뉴스원 8.4)
- 아동 생존권인가, 명예훼손인가...‘배드파더스’ 항소심 17일 시작 (이데일리 9.16)
- 동변, '돌고래 폐사' 거제씨월드-울산고래생태체험관 등 고발 (법률신문 10.6)
- “법무부, 난민심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하라” (법률신문 10.19)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에이블뉴스 10.19)
- 기쁨나눔재단, '이주글로벌 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와 가이드북 발간 (국민일보 10.27)
- '사회주택의 날' 행사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로넷 11.17)
- 통합놀이터 확산 법개정 관계부처 '난색' (에이블뉴스 11.17)
- 대한변협 박주민 의원, 20일 '이주정책 심포지엄' 개최 (법률신문 11.19)
- 서울변호사회와 로펌공익네트워크,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법률가 역할' (로리더 11.23)
- 한국·유럽 시민단체, 장애·소수자 인권 활동 경험 나누다 (여성신문 12.3)
- 동천, 제12회 난민법률지원교육 실시 (법률신문 12.11)
- 동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실시 (법률신문 12.16)
- 명의범죄로 세금 폭탄 떠안은 '피해 홀리스'... 그 후 (비마이너, 12.21)

동천NPO법센터

- 국내 최초·국내 유일의 비영리 지원·산업박람회 'NPO 파트너 페어' 부스 참가자 모집 (에이빙 5.19)
- '공익법인 투명성과, 건강한 기여문화 확산'위한 포럼 25일 열린다 (미디어SR 6.3)
- 광주변호사회·동천 “광주 지역 NPO 지원” 법률지원단 위촉 (법률저널 6.8)
- 민변·참여연대 “장려할 공익소송이 패소비용 부담에 위축...제도개선 민원 (로리더 10.14)
-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 넘은 베끼기 (조선일보 10.20)
- 재단법인 동천, 2020 NPO 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 진행 (로이슈 10.29)
- 동천,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개선해야” (세정일보 12.14)

사회공헌

- 이화여대 '자, 함께'팀, 동천 공익활동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리얼타임즈 2.10)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지원 (로이슈 4.10)
- 법무법인 태평양, 11년째 소외계층 가정 장학금 지원 (에이블뉴스 6.17)
-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세계일보 6.23)
- 로펌마다 공익위원회·공익법인 등 전담기구 설립 (법률신문 8.13)
- 동천·통일법정책연구회,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개최 (법률신문 9.21)
- 동천, 난민가정 장학생 10명 지원 (법률신문 9.28)
- 전·현직 직업인과 청소년 온라인으로 만나다 (경남도민신문 10.14)
- 태평양·동천,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 만들기' 언택트 봉사 (법률신문 11.13)
- 2020 건강한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 '눈길' (미디어SR 11.25)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1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 (에이블뉴스 12.10)
- 태평양·동천, '비대면 연말 나눔행사' (법률신문 12.24)

나눔이야기

2020년 한 해에도 344명의 기부자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활동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동천의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에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천에 기부해 주신 지원금은 동천의 공익법률지원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에 의미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기부자 명단 (총 344명, 가나다순)

강경민	권시내	김석교	김응걸	김호진	박유진	백지옥
강권도	권신일	김석진	김응수	김홍율	박은주	범현
강기중	권영실	김성균	김재민	나혜신	박정은(1)	변민기
강동욱	권영준	김성수	김재연	노민호	박정은(2)	변채영
강미로	권재준	김세라	김정현	노영보	박정음	부광득
강성윤	권택수	김세준	김종필	노은영	박정호	사이토유스케
강수완	그레이스 정	김세진	김주현	노태식	박준기	상지영
강용현	김경목	김소연	김준우	도건철	박준용	서원민
강유진	김경수	김솔잎	김지운	로버트돌리	박지연	서장원
강제인	김경한	김수정	김지윤	류현정	박지은	서정문
강종구	김경화	김수현	김진규	문경주	박찬주	석희재
강한	김광준	김승현	김찬수	문병선	박창수	성해경
강한길	김규석	김연수	김창환	문종원	박철규	손가람
강해성	김대욱	김연희	김태훈	박남규	박평화	송동현
고보성	김도엽	김영룡	김하나	박민경	반종규	송시현
고정현	김도영	김영모	김하영	박상현(1)	방진영	송예숙
고지훈	김명준	김영삼	김현	박상현(2)	배성우	송우철
곽가은	김미경	김우재	김현만	박선희	배열규	송인혁
곽중혁	김민선	김원태	김현민	박성범	배영록	송준현
구대회	김병재	김유라	김현배	박성용	배용만	송진욱
권기순	김보람	김유정	김현일	박성태	배재범	신남규
권대식	김보연	김윤수	김현정(1)	박세정	배정연	신대식
권도형	김상민	김은권	김현정(2)	박여진	백새봄	신동욱
권순익	김상화	김은미	김형배	박웅배	백종현	신사도

신은진	위춘재	이기윤	이정우	임증빈	정재용	최여진	황재원
신재연	유경하	이대아	이정하	임혁진	정주희	최예인	황재희
신제윤	유욱	이동하	이종미	임혜지	정진영	최윤화	황정원
신주영	유원정	이동혁	이주선	장상균	정한별	최인경	황정호
안세현	유재규	이동훈	이준기	장승연	정해인	최진원	황지영
안영수	유제린	이명규	이지영	장은순	정현아	최현진	신우회
안종민	유종권	이문정	이지훈	장진규	정혜성	최휘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안철효	유지선	이민우	이진우	장혜선	조민희	표인수	
안효준	유철형	이범주	이진환	장혜원	조병규	하영진	
양동현	윤대진	이병기	이탁건	장희성	조선희	한대우	유엔 난민기구
양민석	윤민진	이병길	이태기	전은진	조윤진	한동욱	
양유미	윤석준	이상원	이한길	전주혜	조은민	한수경	
양은용	윤성조	이상철	이한솔	정경화	조일영	한유선	
연구리	윤수현	이소영(1)	이현정(1)	정규상	조준연	한지희	
오군성	윤여형	이소영(2)	이현정(2)	정규석	조홍선	허유정	
오금석	윤영원	이수진	이현철	정민경	지승은	현예림	
오도연	윤정노	이승섭	이형석	정세용	진수현	홍기태	
오명은	윤정원	이승요	이화정	정세현	차한성	홍성철	
오수비	윤주호	이윤아	이후동	정순찬	최고은	홍세영	
오양호	윤지효	이은비	이훈석	정승민	최광백	홍정우	
오정민	이경준	이은아	이희종	정영제	최기훈	황선철	
오혜인	이경환	이은정	임나래	정원영	최대술	황승진	
우주경	이근원	이인재	임나연	정윤형	최병호	황용현	
우지원	이기연	이재규	임동진	정재경	최수진	황의인	

참여안내



나눔참여안내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할 때 시원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샘물처럼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법률지원 등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익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동참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구대회 팀장
(전화 : 02-3404-7542, E-mail : dhku@bkl.co.kr)

재단법인 동천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나눔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



동천 살림살이

● 수입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일반후원금	705,804,940	
특정후원금	189,120,000	
현물후원	315,000	
이자수입 등	15,065,119	
수입 총계	910,305,059	

●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고유목적사업비	876,236,957	
공익법률지원	374,508,826	
공익법률지원 활동	288,239,499	
공익법률지원 시스템	13,291,505	
공익변호사 인큐베이팅	72,977,822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29,503,600	
태평양-동천 사회공헌	349,859,844	
동천 사회공헌	338,333,744	
태평양공익인권상	26,024,190	
공익인권단체 지원	70,471,940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10,374,018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26,448,400	
장학사업	141,735,970	
기타사업비	63,279,226	
태평양 구성원 참여 공익활동	11,526,100	
공익가치 확산 활동	2,562,600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7,998,100	
기부문화 확산	965,400	
특별기금 사업	122,364,687	
공익법총서	36,165,360	
동천NPO법센터	86,199,327	
관리운영비	74,215,891	
인건비	50,620,092	
사무 관리비	23,595,799	
지출 총계	950,452,848	

대한변협 공익활동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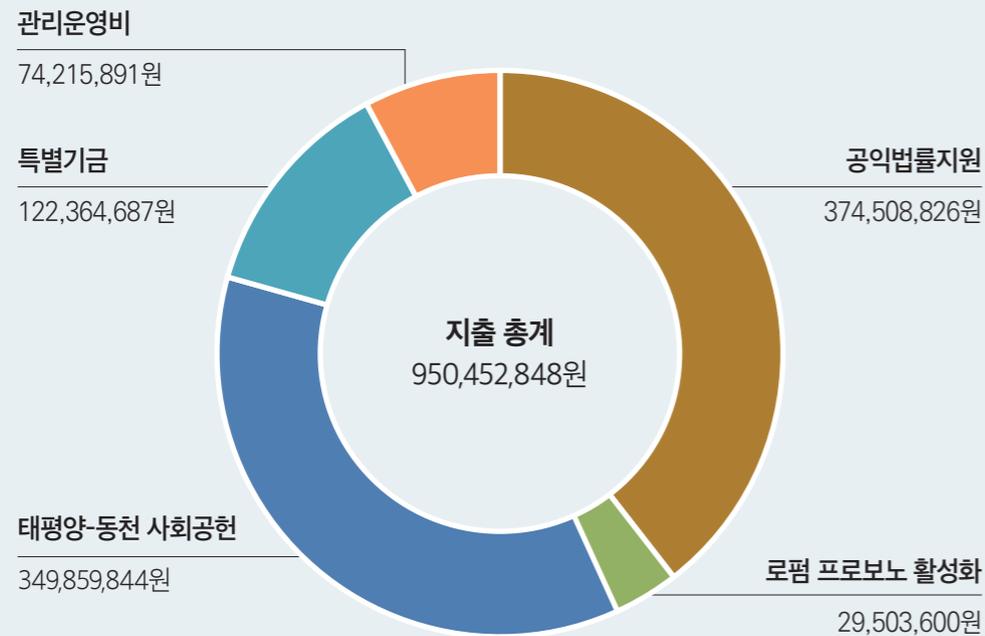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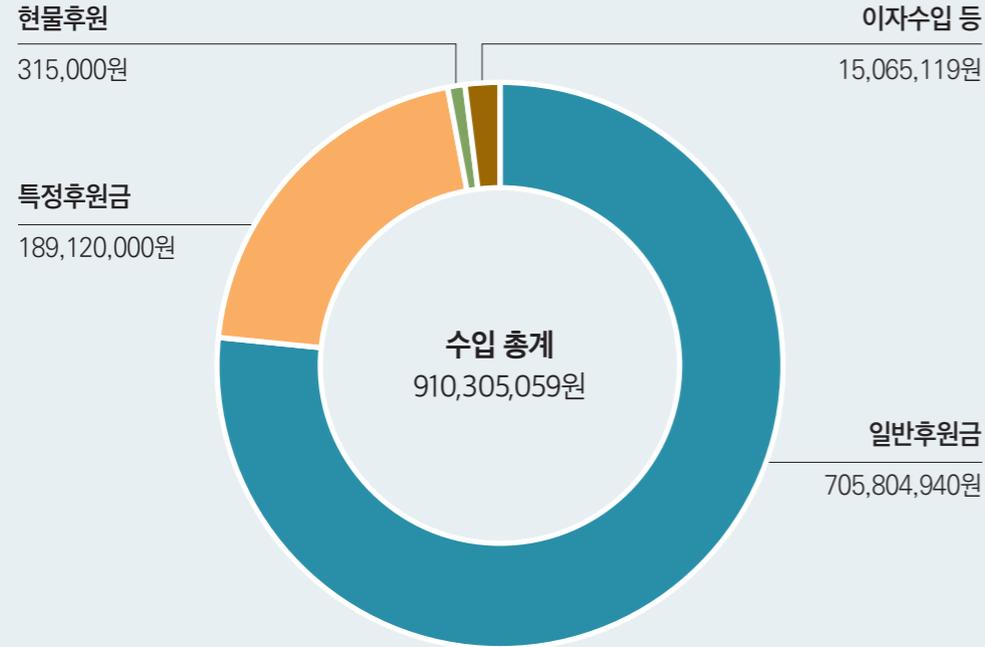
※ 이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대한변협협회가 2013년 2월 발표한 기준을 근거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2020년 공익활동을 평가 하였습니다.
 ※ 이 공익활동 평가 기준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이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6명의 활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결과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6:454(변호사 100명 당 1,322명)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10:454(변호사 100명 당 2,206명)
	1.A.7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동천 상임변호사, 상근변호사, 펠로우 변호사, 직원, 인턴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함 (상임변호사 1명, 상근변호사 4명, 펠로우 변호사 1명, 직원 4명, PA 5명)
B. 활동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35시간 30분
	1.B.1 총 공익활동 시간	17,092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163% (17,092시간:790,167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37.65시간 (17,092시간:454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	54.61시간 (17,092시간:313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68.94% (313명:454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38.55% (175명:454명)
	1.B.7 소속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시간	소속변호사 340명 중 224명 65.88% / 34.7시간 구성원변호사 114명 중 89명 78.07% / 46.44시간 총 결산 1,025,042,510원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2020년도 결산)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 비용 300,221,004원 공익활동위원회 운영비 29,503,600원 공익활동(사회공헌, 교육) 지원비 134,048,787원 외부 공익단체 등 지원비 160,927,356원 인재양성(장학금, PA, 펠로우) 지원 331,836,210원 동천 관리운영비 68,505,553원
	1.B.9 공익활동 수치	소송대리 67건 자문의견 254건 상담 102건 도움받은 사람 423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공익활동분야별 별도의 배당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1.B.12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보고서의 협력단체와 보고서 상의 활동을 함)	
C. 평가, 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 승진, 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반영됨

II.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결과
A. 기부	2.A.1 기부총액	1,258,189,51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1,144,850원 (전체 1,099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75.09%
	2.A.4 기부 현황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B. 사회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728.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약 0.66시간(전체 1,099명)
	2.B.3 사회봉사활동 현황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동천 주요 연혁

2009

- 6월 17일
 - 재단법인 동천 설립

2010

- 6월
 - 첫 MOU 체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 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 : 이후 난민, 이주민, 장애인, 사회적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분야 단체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약체결

- 8월
 - 1회 동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 : 이후 2020년까지 11회에 걸쳐 358여 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 10월
 - 1회 난민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 진행
 - :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변호사, 활동가,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 12월
 - 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여
 - :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우리사회 공익에 기여한 공익단체 및 개인에 상을 수여

2011

- 5월
 - 1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우수활동팀 선발
 - :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50개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소속 예비법조인들이 공익활동 진행

- 11월
 - 세스넷에서 사회적기업 법률자문시스템에 대한 감사패 수상

2012

- 2월
 - 1기 BKL-동천 펠로우십 변호사 채용
 - : 2019년까지 8기 펠로우십 변호사 채용 (총 9명)

- 3월
 - 첫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미얀마 친족 출신 난민)
 - : 2020년 현재까지 170여건의 공익소송 및 신청사건을 대리하여 진행

- 6월
 - 1회 BKL-동천 더불어함께 자선음악회 개최
 - : 이후 매년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소외된 이웃 및 공익단체 후원 (2020년 제11회 나눔음악회 개최)

- 12월
 - 제1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2013

- 2월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회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대상 수상
- 사회적기업 열린웃장에 정장 및 정장 아이템 기부 (441벌)

- 4월
 - 공익단체에 중고컴퓨터 및 사무기기 지원

- 6월
 - bkl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전문가 100명 돌파
 - : 2020년 12월 말 199명의 bkl 소속 변호사가 7개 분과에 걸쳐 공익활동위원회로 활동 중

- 8월
 - 난민지원을 위한 난민법률용어집 출판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 12월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규정 개정
 - : 2003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인 내규로 제정된 공익활동 규정 개정

2014

- 6월
 - 동천 설립 5주년 기념 공익세미나 '공익법운동 현황과 전망' 개최

- 7월
 - 장애인 의족에 대한 산업 재해 보상 판결 승소

- 12월
 - 2014 대한민국인권상 (국가인권위원회) 표창 수상

2015

- 6월
 -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 (2016년 대한민국 학술원 사회과학분야 우수도서 선정)
 - 제 3대 차한성 이사장 취임

- 8월
 -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11월
 - 동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수상
 -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권 관련 토론회 공동개최

2016

- 1월
 - 법무법인 태평양, ALB CSR List 2년 연속 선정

- 6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공익법총서 2권 <장애인법연구> 발간

- 10월
 - 2016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12월
 - 동천NPO법센터 설립

2017

- 4월
 - 제1기 NPO법률지원단 26명 임명
 - : 67기까지 NPO법률지원단 변호사 총 135명 임명

- 5월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선정 (장학사업 후원)

- 6월
 -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세종도서 선정)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일 점심정기 배식봉사 시작 (매월 1회, 역삼동 충현복지관)

- 10월
 - 난민 어린이 장애인 등록 취소소송 승소

- 11월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가입 (국내 로펌 설립 법인 중 최초)

- 근무 중 뇌질환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2건 승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감사패 수상)

- 12월
 -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소송 승소 (항소심)

2018

- 1월
 - 중국동포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승소 결정 [관련 검찰 사건 무혐의 처분 (3월)]

- 2월
 - 태평양·동천-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월
 - 미등록 이주외국인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소송 승소 (일명 그림자 아이 페버 사건)
 - 국무총리실과 함께 2018년 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 6월
 -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
 - NPO 활동가 대상 운영워크숍 진행

- 7월
 - 통일준비 NPO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8월
 -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 제안대회 진행

- 10월
 -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 1심 승소

2019

- 1월
 -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 강요 농장주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승소 (무죄 선고)

- 4월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복구 봉사활동 참여

- 6월
 - 동천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 연구> 발간 (세종도서 선정)

- 10월
 - 이주외국인에 대한 HIV 검사 강제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
 -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세계 공익변호사의 밤' 주최

- 11월
 - Thomson Reuters Foundation Trustlaw Collaboration Award 공동수상

- 탈북민 J씨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재신청 과정'을 조력하여 (통일부의) 보호처분결정 도출

- 12월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20

- 1월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관련 명예훼손사건 국민참여재판 승소 (무죄 선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상고심 승소 (무죄 확정)

- 3월
 - 재단법인 동천 사무실 이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 5월
 - 광주 제6기 NPO법률지원단 실시(광주변호사협회 공동주최)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6월
 -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화상 법률상담 개시
- 제11회 동천 장학생 39명 장학증서 수여식
- : UNHCR 한국대표부 후원에 의한 난민장학생(10명) 추가 선발 및 특별장학금 (22명) 지급

- 9월
 - 제3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 대회 개최
 - 노숙인 대상 세무서의 부가 가치세 부과 관련 직권취소

- 10월
 - NPO운영전문가 과정 진행
 - P사단법인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부과 관련 조력

- 11월
 - 근로능력평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 12월
 -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NPO 법률지원단 변호사 및 단체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 제11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여

EXECUTIVE SUMMARY

As the pioneer of law firm pro bono in the Republic of Korea, Dongcheon Foundation (“Dongcheon”) and the Bae, Kim, and Lee, LLC (“BKL”) actively sought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in 2020. The year 2020 has been irreversibly marked by the pandemic of COVID-19 - BKL and Dongcheon worked towards ensuring that the change brought by COVID-19 does not lead to undue restriction of one’s rights.

When face-to-face meetings became difficult due to social distancing, BKL and Dongcheon’s weekly pro bono consultations for migrant workers were seamlessly converted to online consultations. We participated in the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and published recommendations on rights of minoriti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We sought remedies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for financial assistance policies that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minorities such as refugees and migrants. We successfully held multiple volunteering activities for our members that provided medical supplies and monetary aid to those in need.

BKL and Dongcheon also continued efforts to support and empower all children in Korea. We’ve received a landmark decision from the NHRCK that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regularization paths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The annual scholarship program fund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BKL members was provided to 39 children who are refugees, migrants,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North Korean refugees. It was later expanded to include 10 more refugee children with funding from the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6th volume of the annual Public Interest Law Paper Series published in 2020 was <Study o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was provided free of charge to activists and field organizations working for children’s rights.

We also sought innovative ways to advocate for rights of indigents and homeless. We’ve actively participated in a state tort lawsuit representing family members of a deceased low-income perso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who was forced to work in order to receive government benefits, and later died as his health deteriorated due to difficult work. The lower court found i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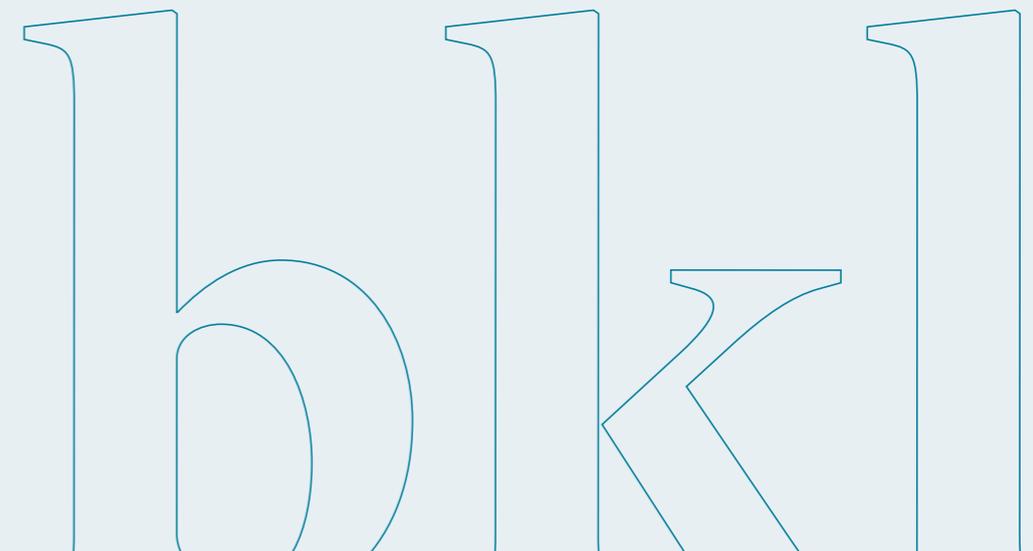
plaintiffs’ favor, and the appeal by the government was overruled. Dubbed “Korean ‘Daniel Blake’ Lawsuit” after the movie ‘I, Daniel Blake’ that depicted the protagonist in the same predicament, the decision was selected as one of the best court decisions in 2020 by the media. We also formed a network with other law firms for the homeless, successfully defending those who were victims of identity theft and imposed heavy tax as a result.

We also represented refugees who were victims of falsified refugee interview records. They had received non-recognition decisions and faced deportation to their home countries where they fled from. We represented them in lawsuits and re-applications, as well as soliciting a NHRCK decision that recommended an overhaul of the current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We also advised the NHRCK that their mandate for protection includes not only specific individual who were victimized, but also groups of minorities groups whose collective rights were violated. As a result, the NHRCK accepted petition from a group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ed high profile politicians to stop and prevent discriminatory remarks.

BKL and Dongcheon are dedicated to enlarging the basis for systematic pro bono culture in Korea. In 2020 we continued our annual legal training for lawyers and activists working for refugees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ReLATE) and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NKReLATE). We held the <9th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Activity Program> for law school students to help them design innovative programs for students and lawyers. We also held the <3rd Contest on Proposals for Laws and Policies on Unification of Koreas> to foster interest in unification laws and policies. We also published and participated in publication of several manuals for activists and lawyers, including <Guidebook on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uide for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Manual for Consultation with Foreigners>. We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Law Firm Public Interest Network to cooperate and coordinate pro bono activities of major law firms in Korea.

Dongcheon Legal Center for Non Profit Organizations (NPOs)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ssisting NPOs and widening the network of pro bono lawyers for NPOs. Our regular training program for aspiring pro bono lawyers (<NPO Legal Support Group Training Program>) now have 135 graduates, who were matched one on one to a NPO for pro bono support. We successfully advised and assisted NPOs facing imminent danger of unfair taxation or deprivation of status as a designated organization for donations, which would have resulted in severe curtailment of their work. We also held online workshops and forums to help NPO activists and to discuss civil society response to excessive regulations for NPOs.

BKL and Dongcheon's pro bono work include area of refugees, migrants, North Korean refug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enterprises, female and youths, welfare, and NPOs. BKL Pro Bono Committee now has 199 members, almost 40% of the total number of associates and partners within the firm.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Pro Bono Evaluation Index of Korean Bar Associati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BKL lawyers reach 17,092 hours in 2020, which equates to 37.65 hours for each lawyer - far exceeding the 20 hour requirement set by the bar associations. Almost 70% of the BKL lawyers participat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2020. We will continue to work towards 'a healthier and brighter society' through systematic and vigorous pro bono activities.







재단법인 동천은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